

예수님

우리들의 유일하고 진정한
소망



예수님

우리들의
유일하고
진정한 소망

1st edition 10,000 copies
2nd edition 25,000 copies

published 2002 by **GBV**
GBV-DILLENBURG
Eiershäuser Str. 54
35713 Eschenburg
Germany

FAX-No. 49-2774-8005-50

© Missionswerk Werner Heukelbach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NKJV)

Printed by: Druckhaus Gummersbach, Germany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소: 나사렛
본적: 베들레헴
연령: 30세
직업: 목공,
순회 전도인
특징: 성격이 독특하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줌.
심판받은 원인: 신의
아들이라 자칭함.



고소인:
예루살렘성
유태신학가
최종심판:
십자가에
못박아 죽임

심판기록 개요

기원 33년 그날,
아래의 소식이 예루살렘의 가장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주심판관인 유대성 총독 빌라도는 심판도중에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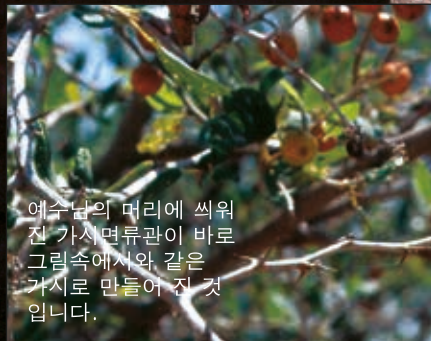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37)



가이사라에서 빌라도가 세운 돌비석의 비문



예루살렘성의 고대건축 석판 유적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이 바로 그림속에서와 같은 가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박아 죽임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 채찍질한 후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병사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괴롭히고 조롱 하였으며 또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길고 땅땅한 가시에 살이 찢기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병사들은 큰 몽둥이로 예수님의 머리를 수차 내리쳤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은 온갖 고통과 조롱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로마병사들은 또 왕들만이 입는 자색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이 모든것은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의 발앞에 꿇어앉아 비난하는 목소리로: “축하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앤서니요새는 당시 로마총독의 관저



고대 예루살렘성의 지도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끌고가는 도중에 군병들은 한사람을 강박하여 예수님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사형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몽땅벗겨 버리고 십자가에 눕힌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곧추 세웠습니다. 군중들속에는 예수님의 수난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독이서린 눈길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흑암이 모든것을 덮었고, 온 세상은 캄캄해졌으며 쥐죽은 듯이 고요해 졌습니다. 이렇게 3시간이 지난후 약 오후 3시경, 십자가로부터 천지를 진동하는 부르짖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고 웨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함께 천둥소리가 하늘을 메웠고 천지가 진동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통스럽고 슬픈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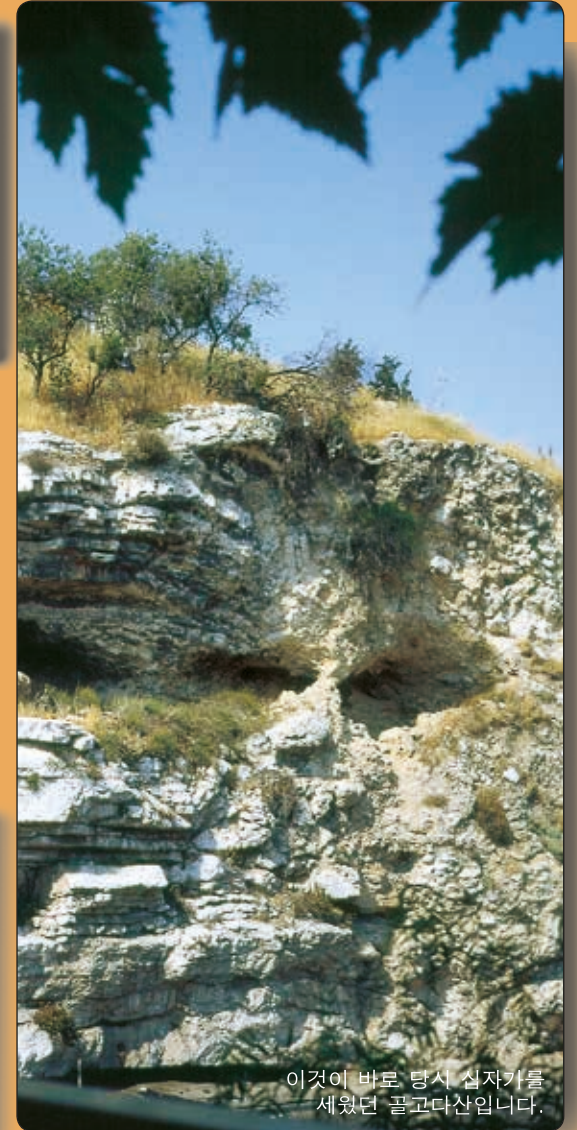


겟세마네 동산의 수탉



모방하여 만든 십자가

이어 대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가 뒤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속에 빠져 어찌할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모습을 본 백부장은 얼굴이 백지장같이 되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두려움에 떨리는 못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십자가를 세웠던 골고다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상황은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고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일 그때 신문이 있었다라면, 그
날의 신문보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두려움속에 잠겨있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
하였다!
사흘 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를 보았다.
그 외에 500명이 그를 보았다고 간
증하였다.
예수가 정말 죽었을까?
관청에서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
추문이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매수됐다!
절대적인 비밀이니깐 공개할 수 없
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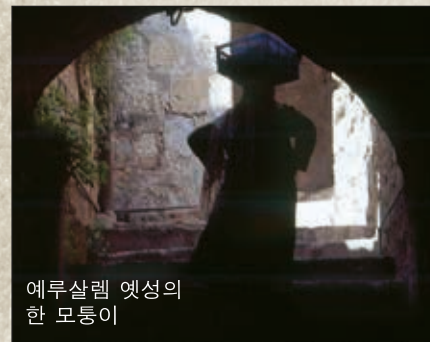
나의 세상에서 살아갈
나날들은 얼마 남지 않
았지만 나의 남은 인생
은 예수님께 속한 것입
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
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분과 같이 있길 원합
니다. 무덤은 결코 나
의 최종의 귀속처가 아
닙니다.

예루살렘정원에
있는 무덤

그럼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루살렘성의 금문



예루살렘 옛성의
한 모퉁이

예루살렘의 온 성이 떠들썩했습
니다!
어려가지 소문들이 떠돌았습니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왜서 그를 죽
여야만 했는가? 무엇때문에?
우리의 영수들은 무엇때문에 그
를 십자가에 못박았을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
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만일 그들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
었다라면 그들은 예수를 선택했
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손에는 이 로마
군병들을 몰아낼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의 진상은 그렇지 았
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였습니다.



선생인 예수님에 관한 풍문

그 며칠사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의문하는 주된 주제가 되었으며 공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날로 많아 졌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발견 될까 두려워서 집안에서 비밀리에 집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만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으며 또 확실하게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와 관련된 이러한 사실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였지만 사실의 진상을 알아낼수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거짓말쟁이이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들떠서 사회를 개변시키려는 격진분자인가? 아니면 실패자인가?

예수는 정말로 자신이 말한 것처럼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는 정말 부활하였을까?

예수는 전례없는 거짓말쟁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느니라 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자가 도리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박 혀 죽임을 당했으니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정말로 자신 이 말한것 처럼 메시아이고 영원 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두 너무허무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와 관련된 이러한 수많은 의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히 이 모든것을 해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답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인간세상에서 행한 무수히 많은 기적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도움으로 질병을 치료받 았던 사람들은 예수의 독특함과 그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 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갈릴리바다의 저녁노을

역사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다른 평판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부동한 관점은 그토록 첨예했으며 수화상 극이었습니다. 그를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미워서 지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난감 해지기 때문에 그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왜서 일까요? 이는 그들이 이러한 일들은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목할만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예수님 앞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히 주목할만한 점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든지 굶주리고 연약한 자, 사회의 버림을 받은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인츰 그의 주변에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지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와 반항을 자아냅니다. 어디에서든지 물론하고 예수와 관계된 화제를 둘러 싸고 논쟁이 벌어졌을 경우, 관점상의 양극분화가 즉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을 놓고 수천 년동안 그렇게 많은 서적들을 끊임 없이 내놓음으로서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계속하여 증명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 죽은 사람을 놓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와 관련된 영화가 계속하여 촬영 및 방영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 일까요?

혹시, 이 가운데 이야기 뒤에 숨긴 더욱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친구와 적, 이 두무리의 사람들을 모두가 사람을 혼란케 만들고. 예수님이여!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역사는 예수란 사람이 확실히 존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예수란 사람이 확실히 존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기원 90년대, 유대인의 한 역사학자 F. 요셉은 그의 저서 <고대사>(18권 제3장 제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대개 그때 지혜로운 자, 예수란 사람이 있었다. 만일 그를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의 율법에 부합된다면 우선 사람으로 부르기로 하자. 그가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선생이라 불렀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종교는 모두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평생 그를 따르고 그의 안에서 살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그를 믿었으며 그는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우리가운데의 유력자의 말을 듣고 그에게 사형을 처했으며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그가 사후 후에 부활하고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예언한 무수한 기묘한 일이 모두 이루어졌다.”

성경이외의 많은 문헌들에서도 예수에 대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역사학자 타키스투, 로마황제 하드리아누스하의 법관 수에토니우스 및 소아시아비티니아 등의 작품들은 모두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반수의 구라파대륙으로 하여금 벌벌 떨게 했던 나폴레옹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 일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모든 군대와 모든 장군을 동원하여 4분의 1세기나 되는 시간을 투자 하였지만 결국 그 어느 한 대륙도 점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라는 자는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천하 만민과 모든 문화를 천여년 동안 증복시켜 왔다.”



유일한 합리적인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갈릴리바다위의 어선

예수님이 역사를 창조하려 한다?

아닙니다! 그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 18:36)라고 말했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 권세를 원했다라면 벌써 세계를 증복하려는 열망자들과 같이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역사를 창조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불쌍한 이 애기의 슬픈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성밖의 말구유에서 태어나 말과 소떼들과 함께 잠을 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가 무엇을 믿고 세계를 증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세계역사에 미친 영향은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주셨으며 영생을 주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그를 통해 치료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전세계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지금에 와셔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사람에게 준 계시와 예수그리스도 및 성경이 3자는 영원히 결합되어 우리에게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타락하고 점차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 세계를 구원하려고 보낸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인 예수그리스도를 비웃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는 모두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시편 14:1)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현실을 가장 멀리 벗어난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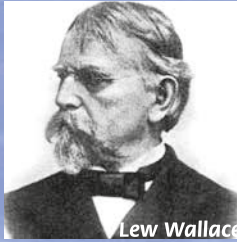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 11:25)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어느 종교에 속하였느냐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가 여부에 있습니다.

반·호르 - 뛰어난 창작 - 세계의 베스트 셀러

전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을 감동케 한 영화거작

류 - 화라이스 장군은 기차에서 유명한 운동원... 와 만났습니다. 그들은 태양아래의 모든 사물을 화제로 삼고 예기하였으며 “예수를 믿는다”와 같은 황당하고, 우스운 화제도 예기하게 되었습니다. ...는 도전적인 어투로 ... 장군에게: “장군은 양호한 교육을 받은 학문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실이고, 또 예수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책을 쓰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Lew Wallace



예수님은 이제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청정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는 끝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라이스는 과연 전심전력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였고, 장차 이름을 날릴 생각을 하니 좋기만 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시간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제4장을 쓴 후,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예수그리스도는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앞에서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50살이 되든 해, 끝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구원해줄 것을 기도하였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그이에게 바쳤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그 책을 다시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베스트 셀러 <반-호르>이었다.

그후, 동명 역사영화로 개편되었고, 전 세계의 가장 많은 표판매 기록을 창조하였다. 기독교 신앙의 격렬한 비판자였던 화라이스 장군은 회개하고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심령으로, 믿음으로 만이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18을 읽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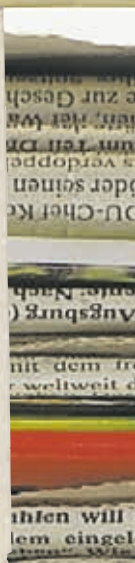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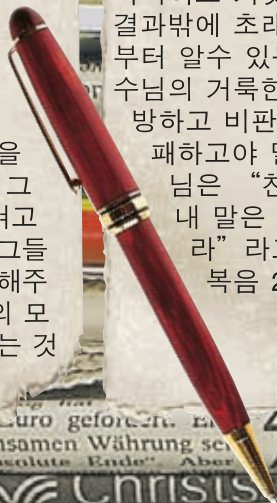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8)

.....그들은 여전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일부 신문과 잡지들은 계속하여 교회와 기독교민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독교신자들을 “머리가 단순”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뒤떨어진 사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적인 이론과 추측을 논쟁의 의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땅바닥속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의 모든 설교가 믿음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가지 사실만은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어떠한 정의든지 모두 반대되는 증거를 내놓은 후에야 뒤엎을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를 뒤흔들려고 시도하는 비과학적이고 거짓된 것은 모두 파멸의 결과밖에 초래할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모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리론도 모두 실패하고야 말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마태복음 24:35)



물론, 기독교와 관련해서 많은 관청주장들이 틀린 신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구 고친것 만으로도 끔찍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이름하에서 저지른 수많은 수치스러운 일들은 더구나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기의 십자군동정 - 공포한 종교적 재판,얼마나 많은 죄없는 자들을 살해하였습니까! 지금에도 많은 거짓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다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행한 일과 사람들이 꼭 그리스도와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같이 사랑의 생명을 개변시킬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나는 천근의 짐이 나의 마음속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다. 또한 무서운 죄책감도 나를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쾌활하게 웃는 것이 무엇인지 느낀 것 같습니다.

이상할바는 전혀 없습니다...

감히 성경의 권위성을 선포하는 사람이 적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거리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머리를 돌려 제갈길을 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설교가 단조롭고 침체되어 있음을 느끼는데 이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성경의 진리를 생활과 신앙의 기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설교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문화전통의 기독교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기독교신앙간의 구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기독교신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기초로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권위를 잃을 것이고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서 또한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취소하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원하여 이 시대의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이상을 쫓아 다닌다면 소경이 소경에게 길을 인도하는 격이 아닙니까?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세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및 물질세계와 함께 뒤섞이는 유명무실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방향을 잃은 세계가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짓의 빛을 뿌리게 됩니다.



사람을 속이는 빛

과거에 저는 얘기때 세계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고, 그를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지배자로 영접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한권의 위대하고 특이한 책

유일한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밝은 빛을 뿌리는 등탑과 같이 광풍폭우의 세계 역사를 환히 비춰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성경은 사막에서 잃어버린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무정해지며 헤아릴수 없는 혼란과 미혹이 옵니다! 예수그리스도와 성경은 갈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영원한 ... ,하나님의 목소리에 끌리게 됩니다. 만물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들을 경탄게 하며 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을수 없게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진리앞에 머리를 숙으리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의 빛을 멀리 피할수 밖에 없게 합니다.

여기에 성경과 관련된 몇가지 일은 당신이 알아 두어야 할 일입니다.

저작시간:
전후약 1천500년을 사이두고 씌여 졌습니다. (1400BC - AD90)
저자는 약 40명입니다.
왕,목자,어부,제사장,정부관원 등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고 약 1300페이지입니다.

성경주제: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계획.

중심인물: 예수그리스도.

특색성: 성령의 계시로 선지자들에게 의해 기록되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원시적 기록이지만의 수천종의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었으며 수천만 사람들이 열독하는 책입니다.

열독제안:
<How the Bible come to be>
저자WillemJ.J.Glashow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1562
년에라스무스
(Erasmus)판
성경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 그의 호칭 및 특성은 신약에서의 예수에 대한 묘사와 완전히 같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자 곧 그의아들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 시라” 요한일서 5:20

지금 구약의 몇 성경구절만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모두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의 성탄: 이사야서9:5-6;7:14.
이루어짐: 누가복음1:26-38;2:1-20.

그의 탄생지: 미가서5:2
이루어짐: 누가복음2:4;15

애굽으로 도피: 호세아서 11:1
이루어짐: 마태복음2:14-15

그의 임무: 이사야서59:20
이루어짐: 마가복음10:45; 로마서3:24.

기적을 행함: 이사야서35:5-6;42:7.
이루어짐: 마태복음11:5; 누가복음18:35-43

그의 수난과 버림당함: 시편56:1및69:
이루어짐: 마태복음26:3-4; 누가복음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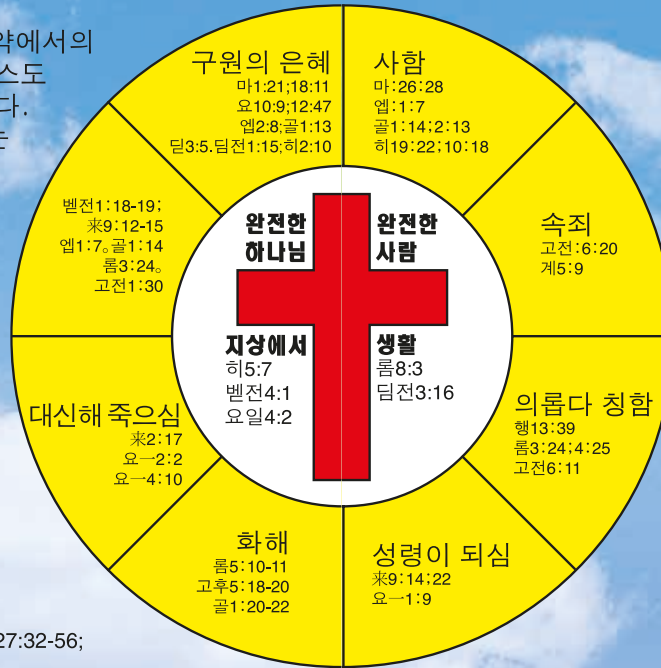
30은전으로 팔리움을 당함: 스가라 11:12; 시편55:12-14;20-21.
이루어짐: 누가복음22:1-6; 마태복음 26:47-54;27:3-10.

모함 받음:
시편109:1-4
이루어짐: 마태복음26:59-60.

조롱 받음:
시편22:6-7.
이루어짐:
마태복음27:27-30;
누가복음23:35-37

십자가에 못박힘:
시편22:14-17.
이루어짐: 마태복음27:32-56;
요한복음19:17-18.

적을 위해 기도: 시편109:4°
이루어짐: 누가복음23:34.



십자가에서의 웨침:
시편22:1-2
이루어짐:
요한복음 19:30
죄인들과 함께 죽으심:
이사야서 53:9-12
이루어짐:
누가복음23:33

그의 옷을 제비 뽑음:
시편22:18
이루어짐:
요한복음 19:33-36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 시편 34:20
이루어짐: 요한복음19:33-36



인류가 소유한 가장 위대한 문학적 보물고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시편22:16; 스가라12:10

이루어짐: 요한복음19:24

목숨을 버리심: 시편40:6-8
이루어짐: 요한복음19:24

다른 사람을 대신해 수난을 당함: 이사야서53:4-6;12

이루어짐: 마태복음8:16-17;
베드로전서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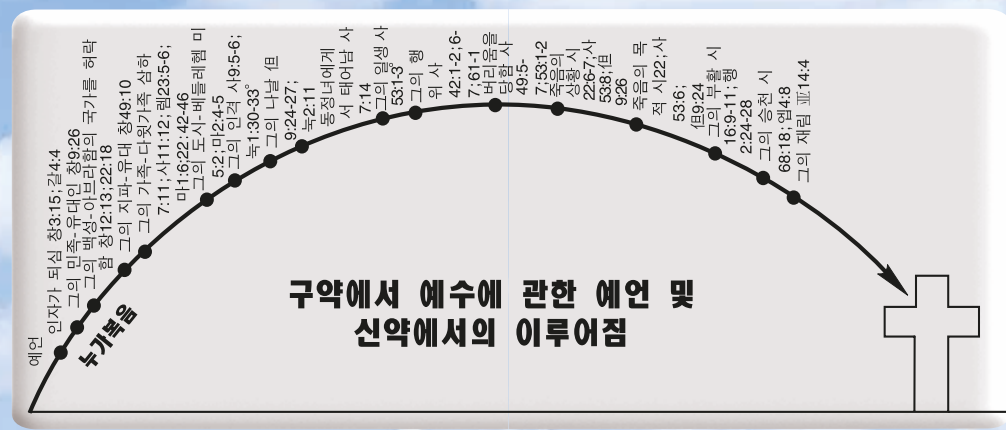
그의 부활: 시편16:9-11;30:3; 118:17
이루어짐: 요한복음20

그의 승천: 시편68:18;110:1
이루어짐: 사도행전1:9-11

그의 재림: 스가라12:10
앞으로 이루어짐: 데살로니가전 4:13-18
계시록19:20;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경구절에서 이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1:1
요한일서5:20
로마서9:5
히브리서1:8-10
디도서2:13
요한복음10:30
요한복음14:9



그리스도의 일생과 한 일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브리서13:8).
그리스도는 공간과 만물을 초월한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17:1:5

← **알파** 계시록22:13

그는 **지난날...** 계시록3:4

→ **지금은.....**

영원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인자 되심

세계 요한복음1:1-3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17:1
(아이엘샤다이)

자유롭고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출애굽기3:14;6:3

예수그리스도


영원한 창조



세계와 인류를 창조
창세기1:1-3

인류의 타락과 범죄
창세기3:1-3

에덴동산시기
창세기 1:-3:



아담,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남
창세기 6:-9:

대홍수 노아가 방주를 제조함
창세기 6:-9:

양심시기
창세기 4:-9:



바벨 탑
창세기11:

인지시기
창세기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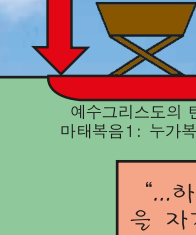


이스라엘 애굽을 떠남
창세기 12:-50:

이스라엘 조상시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십계)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매
율법시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 대소선지자서.



예수그리스도의 탄생
마태복음1:1-2; 누가복음2:1-7

갈릴리산 무덤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복하게 하시며...”
고전도후서5:19

“하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 급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전도후서5:21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 복음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10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24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

그리스도의 일생과 한 일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전15:28

...장차 영원히 계실” 계1:4

오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에 성령이 탄생
사도행전2: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히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당신이
결정
내릴때
입니다.



교회시기

성경에서는
신약 사도행전과 서신들에 기록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
라 행 16:31

“우리가 우리 죄를 자
백하면, 하나님은 신실
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서
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
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
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
입니다.” 요한일서1:9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
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
도
들
은
인
하
는
로
오
를
나
다.
의
길
의
길
의
길

구원받은 사람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중에
강림하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감람산

그리스도 대적시기
살후2
단7:7
계13:1;17:

하나님의 심판
계4:-19: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재난을 경험**

계시록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서 왕으로 통치
하십니다.

그리스도 통치시기

이사야11: 미가4:계시록20: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
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게 하듯 친명하고 위로하고 정제하
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
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2:11-12



백색대보좌에
서의
최후 심판
계29:11-15
벰전3:7

영원한 멸망의
유황불못에
던지우니
계:20:10-15

“누구든지 생
명책에 기록되
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지우더
라” 계20:15

새하늘과 새땅
벰전3:13
계21:1

영
원
히

예수님의 비길바 없는 흡인력

예수님과 같이 전 세계를 개변시킨자는 없습니다.

갈릴리바다의 원경

그는 크나큰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인류사회의 율법문화가 어떻게 다양하든지 막론하고 90%가 성경에서 나온것입니다. 성경에는 혼인가정, 생명의 가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회구조, 정치안정, 빈곤한 사람을 돕고, 생물을 보호하는 것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한 모든 것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목적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고 완전하며 무죄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요1:14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수준에서 또한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히브리서 1:1-2에서 말한바와 같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은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 그는 확실히 인류의 세상에 살았었습니다!

저를 후회하게 한 일은 단 한가지 입니다. 즉, 예수님께로 일찍 돌아가지 못하고 저의 평생을 그분의 손에 맡기지 못한것입니다.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한가지 가설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전제가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 는 필요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가 통하는 음양 두선이 서로 절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단락이 일어나 전기를 방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류의 이 특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보같이 보이고 우습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대하는 태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증명될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로부터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치료와 보호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불쌍한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모든 암흑한 권세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과거와 같습니다! 당신도 그분과 접촉하고 교제하는 경험을 친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존스의 이야기

저는 13살때 부터 캄패집단과 함께 휩쓸려 다녔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마구 행동하는 것은 절 흥분케 하였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또한 나에게 많은 시끄러운 일 들 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일을 밥 먹듯이 했습 니다. 일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발 전되어 갔습니다. 싸우고, 체



이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예수 를 전했습니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 에서는 그 들이 말한 예수님에 관 한 이야기 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 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하여 예수님 은 살아계시고, 또한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말

은 마치 화 살마냥 저의 가슴을 찔렀 고, 저도 점차 그들을 믿게 되었으며 저의 마음을 그들앞에 열어놓기 시작 하였으며 끝내 그들앞에서 과거 의 모든 타락한 삶을 조금도 숨김 없이 밝혔 습니다. 저는 저의 죄악 으로 깃든 삶 과 저의 잘못, 그리고 그 잘못에 묶인 나 자신을 승인하 고 회개하면서 예수 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회개하 고 예수 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 다. 만일 저의 인생이 아직 의의가 있 다면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주관 하여 주십시오! 신기한 것은 그분 이 정말로 저를 두팔로 껴안았다 는 것입니 다. 술주정뱅이과 마약 중독자인 저를 깨워주시고 구원 해주셨습니다. 저의 죄책감과 자 포자기는 완전히 사라졌 습니다! 저의 생활은 빛과 즐거움으 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 신 능력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으로 만드셨습니다! 현재, 저 의 생활 은 매우 행복합니다. 결혼 을 하였고, 3아이를 갖고 있습니 다. 저는 미래 에 대해 신심과 용 기로 가득차 있습 니다. 그 원인은 저는 예수님께서 저 의 가정생활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존스

수정과 같이 맑은 말씀!

진리는 빛입니다. 사회 각 계층의 무 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철저한 개변을 경험했 습니다. 실망하고 두렵고, 억제를 받는 과거생활에서 해방 되어 나온 사람들에 게 있어서 이러한 개변은 꿈에서도 생 각지 못한 것입니 다. 현재 그들은 신 심과 행복으로 충만 되어 있으며 미래를 향해 용감히 나아가 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에 대한 많은 편견을 포기하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든 그러한 선전과 비난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사실적 근거가 있는 지를 잘 생각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좋은목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이니” 요 14:6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독특한 생명의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 8:12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 거할지라도 절대로 두렵지 않고 무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요 6:35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풍부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진리인” 요 14:6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동요할수 없는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길이인” 요 14:6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바른 길을 걸을 것입니 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요 10:9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 10:11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보호와 보살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요 11:25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담대히 대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 당신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하며, 정의롭고, 자애로우시며, 긍휼하시고, 신실하시며 완전선량하시고, 전능하시며 진리로 가득찬... 심지어 당신을 제일 미워하는 자들도 반드시 승인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절대로 독특하고 기묘하며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신화도 아니고 전기도 아닙니다! 그는 민간에서 전파되고 있는 전설적인 영웅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죽었지만 예수님만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진실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비길수 없는 기묘입니다! 예수님의 기묘한 본성은 우리들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순결하고 완전하신 사랑! 그분은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이 없으십니다.우리 모두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들의 본 형태를 알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을 전심전의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15:9-13°

예수님-오래 참으시고 육신의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며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가장 갈급한 수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요4:1-26

예수님-인애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관심하십니다. 그분은 실패하고 타락된 인간에 대해 큰 관심을 부어하고 있습니다.우리들을 위해 그분은얼마나 많은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우리들로 인해 파괴된 모든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것처럼 자애로우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분은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요2:1-2°

예수님-성결하고 흠이 없습니다. 천부의 영광과 관계되는 일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으로 만든 사람들을 추호의 주저도 없이 쫓아버렸습니다. 그의 성결함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요 2:13-22

예수님-친절하시고 배려가 깊습니다. 십자가에 박혔을때,비록 자신은 거대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모친을 잊지 않고 모친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함으로써 모친이 보살핌을 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요 19:25-27

예수님-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녔고, 따르는 무리가 날로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에 갈급했습니다. 그분은 또 과자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수천명에 달하는 남녀노소를 먹였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요 6:1-15

예수님- 긍휼하시고 동정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종래로 죄인을 질책하지 않고 언제나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을 속인자든지, 음행을 행한 자든지, 비열하고 험악한 자들이든지 막론하고 그분은 모두 그들 내심을 바라보았고, 그들을 위해 슬퍼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수요를 알고 있으며 그들을 묶고 있는 권세를 깨부셨으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눅 19:1-10

예수님- 통찰력이 예민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수요와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분에게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분은 이처럼 예민한 통찰력을 갖고 있으시며 사랑의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마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눅8:40-48

예수님-신의 자애로움. 그분은 언제든지 수시로 환자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무력한 군중들을 도왔고 그들을 위해 우려를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마9:36

슬픔을 들어주었고, 도움과 친절함, 그리고 우호적인 말을 듣기 원하는 그들의 하소연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달콤한 샘물마냥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온갖 굴욕을 받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은 거지마저도 그분의 앞에 나오길 원했습니다. 막 1:40-45

예수님-죄를 사하시고 용서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통찰할수 있지만 종래로 그들이 범한 죄와 잘못을 그들앞에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죄를 엄하게 질책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으며 또 하나님앞에서 용서하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눅5:17-26

예수그리스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 죽이려는 사람을 예수님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사람들로 부터 실패자이고 무능하다고 불리우는 사람을 예수님은 항상 격려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사람들이 미움과 증오를 뿌려놓는 곳에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를 뿌려놓습니다. 우리들이 자만하여 자아숭배에 빠져있을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범죄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기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기다릴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사람도 침몰되기를 원치 않으며 우리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들이 모두 회개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우리들을 구속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산위에 세운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든지,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우리자신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심판을 피할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죄성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인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박혔으며 이로서 성결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이로서 회개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인류가 그분에게로 돌아갈수 있는 유일한 구속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행4:12

예수님은 항상 저에게 제가 구하려는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20장~ 2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것은 절대 그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묘한 계획이며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세상으로 내려 오신것은 인간을 무서운 지옥의 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그분은 우리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박혀 우리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 못박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에게로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우리들은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를 대신한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평안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죄를 승인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피는 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최후로 “다 이루었다!” 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인간에 이르는, 과거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영광의 승리입니다!



갈릴리산의 골고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이루었다! 요 19:30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최악의 사망과 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누가복음24장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제3일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나도 그분의 부활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최악과, 사망,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세상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말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찌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1:17-18



산언덕에 있는 무덤으로 드나드는 계단

두갈래길 - 두가지 결말 - 우리 자신이 선택합니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이는 유일한 정확한 선택입
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
신을 예수님께 맡
긴 사람은 손실이
하나도 없을 것이
며 모든 것을 누
릴수 있습니다!



1. 죄고백. 하나님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
을 받고,

2. 회개. 기도하
면서 회개하고 하나
님앞에 죄를 고백하
고 회개하며 하나님
의 용서를 구합니다.

3. 받아들임. 믿음으로 주님의
죄사함을 얻고, 그분의 구속의 은
혜를 받으며 예수님이 흘린 보혈
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4. 믿음과 의탁. 하나님의 말씀
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응낙 한것
은 영원히 신실하고 믿을만하며
그분은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습
니다.

영생

영원히 죽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
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13-14

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아뢰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명심하고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혹은 아래의 기도문을 읽음으로서 하나님께 당신의 결심을 표할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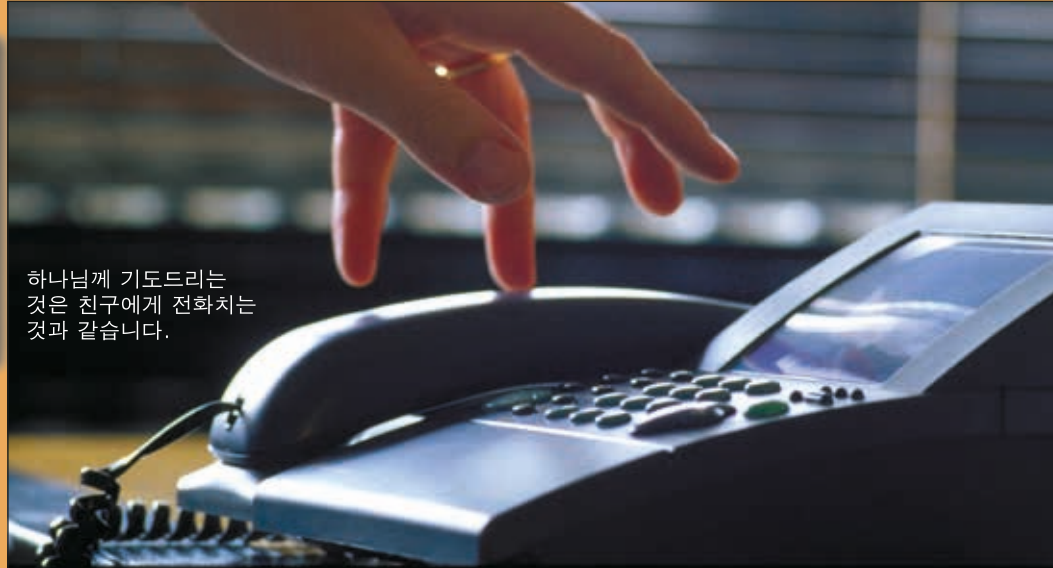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은 저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거짓말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에 미움을 품고, 질투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더럽고 비도덕적인 일을 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 당신은 과거에 범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할수 있습니다.) 과거에 범했던 죄를 가슴 깊이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주옵시고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역시 저를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다듬어주십시오. 지금 주님께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명에 개입하셔서 첫 자리를 차지하길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승낙한 것을 지키시기에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음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한 승낙을 믿고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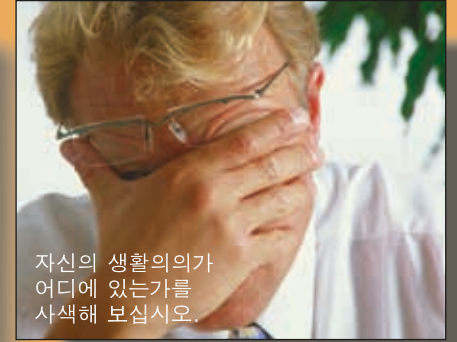
이제부터 다시는 미신과 점 치는 것 따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보살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생명을 지배하시고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할지라고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친구에게 전화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활의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사색해 보십시오.

나의 생명의 마지막 한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가입니까? 다른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지금은?

1. 감사.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사함에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것에 감사하며 매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신것을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 1:12**

2. 전하고 찬양.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당신은 주님께 속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해석하고 선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8-10**

3. 기쁨. 당신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향한 미래는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고전2:9**

4. 집회단결. 늘 주님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앙이 바른 교회 혹은 가정예배에 참석합니다. **행 2:42**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행할것을 바랍니다. 성경에는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행 2:41**

5. 성경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으며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옳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마 4:4; 행 17:11**

6. 생활의 간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 시시각각, 모든 일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며 당신은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롬 12:1-2**

살가운데 감자가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저는 주 예수님께서 만사가 서로 작용을 발휘하여 저에게 유익한 쪽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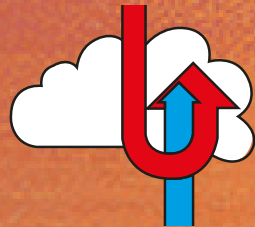
믿음은 계속하여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현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7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재림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시대의 여러가지 징조는 모두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예언이 곧 실현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열독하십시오.



역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재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 그분이 재림하면 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영원한 영광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이 다시는 우리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애통과 슬픔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암흑은 더구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입니다. 누가복음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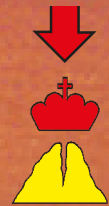


26-29페이지를 보십시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여러 천사들과 함께 임하셔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할 권세를 주관하십니다.

롬 2:5 모든 죄인은 모두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떨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심을 승인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비웃고 수치를 주었던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박혔던 인자 예수임을 알아볼 것이며 더는 웃지 못할 것이며 자신들의 범한 죄의 악과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변두리에 다 닿았지만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의 침대 곁에 서있는 것 만큼 난처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아직 얼마동안 더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최종 가야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속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는 당신의 선택에 있습니다!



표에 도달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임종시에야 모든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생이 있을수 없으며 영원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백살까지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가락의 한숨처럼 공중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큰 성과를 거두어서 이름을 날리고 당신이 한평생 추구하는 목

때문에 인츰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20

나의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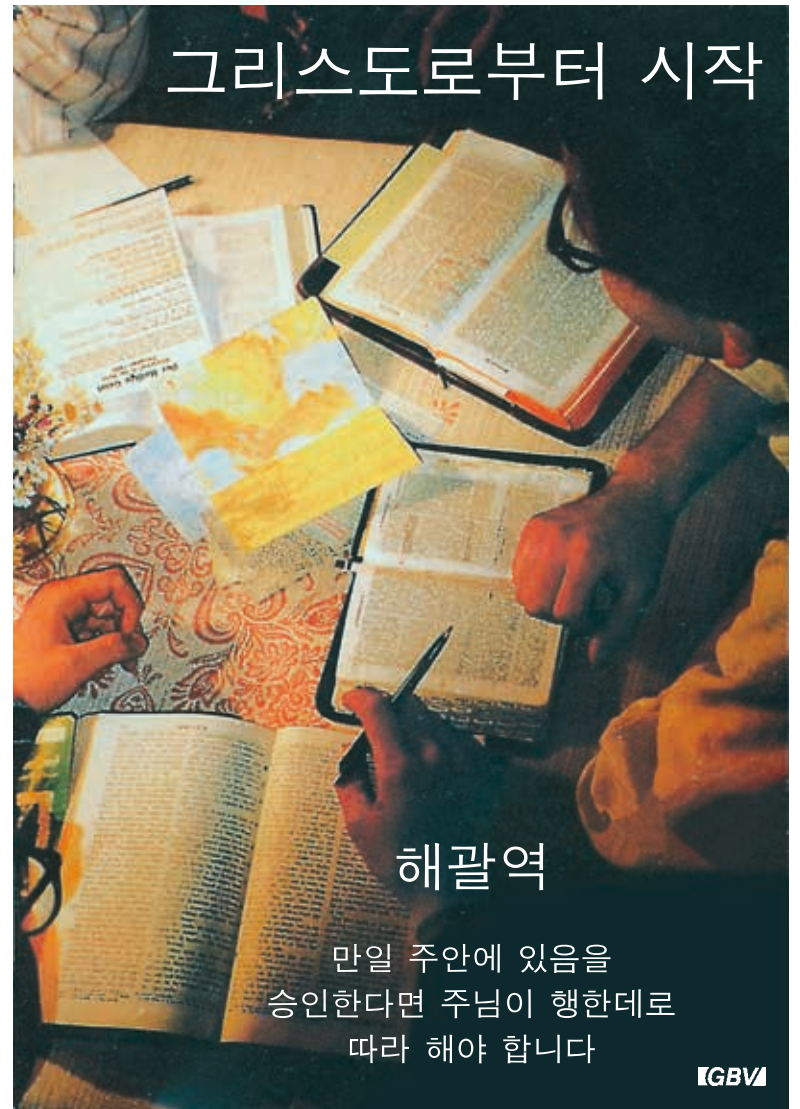
나는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삶의 지배자로 영접합니다.

이름:

날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그리스도로부터 시작



해괄역

만일 주안에 있음을 승인한다면 주님이 행한대로 따라 해야 합니다

IGBV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부터 시작한다>이 책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편지가 오시면 무료가 부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

GBV-Dillenburg
Eiershäuser Str. 54
35713 Eschenburg
Germany

